"여수 엑스포는 어떡하라고…"

전남 지역민·해양 수산단체 해수부 해체 큰 우려

"해체 되더라도 엑스포 차질·해양산업 위축 없어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16일 해양수산부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개편안을 확정·발표하자 전남지역민과 지역 수산 관련 단체들은 해양수산부 폐지에 반발하는 한편 여수세계박람회 성공 개최에 먹구름이 끼지 않을 까 우려하고 있다.

전남도는 또 해양자원의 개발과 산업화를 통한 동북아 해양경영의 중심지 실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주무 부처의 폐지로 인해 이들 사업이 차질을 빚어지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여수시 세계박람회 준비위원회와 지역 해양 수산 관련 단체들은 일제히 해양수산부가 존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한편 국회를 통과해 최종적으로 해수부가 폐지되더라도 여수 세계박람회의 차질없는 추진과 해양수산업무가 위축되지 않도록 보완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지난 1996년 출범한 해양수산부는 2016년 5대 해양강국이라는 비전을 갖고 미래지향적으로 신해양산업을 개척해 왔고 여수엑스포 유치 및 추진에 주무 부처로서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남도는 올 초에 2008년을 '해양경영의 원년'으로 삼고 조선산업과 해양관광 등의 해양경영을 통해 지역의 부가가치를 창출함으로써 동북아 해양경영의 중심지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밝혔었다.

그러나 해수부가 폐지될 경우 이 같은 전남도의 역점 사업 추진에 큰 차질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불과 4년 밖에 남지 않은 여수세계박람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국제박람회기구(BIE)와의 협조관계 유지 및 약속된 사업 등에 차질을 빚게 될 가능성 마저 제기되고 있다.

여수시 세계박람회 준비위원회와 경남지역 해양 관련 민간단체 등으로 구성된 '남해안권 공동발전 민간협의체'는 이날 "2012 여수세계박람회의 차질없는 준비와 성공적인 박람회 개최를 위해서는 해양수산부가 꼭 존치돼야 한다"면서 "최종 단계까지 해체로 결정되더라도 엑스포 개최나 해양산업 위축이 없도록 보완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설맞이 사랑의 구호품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소속 직원 20여명이 지사 구호창고에서 광주·전남지역 차상위 계층 2천600세대에 전달할 설맞이 구호품을 1.5t 트럭에 싣고 있다. 대한적십자사는 이날 10kg 짜리 백미와 부침가루 등이 든 부식 2천600세트를 시·도민에게 전달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광주·전남 경지면적 3,000ha 줄었다

유휴지·건물 등 신축 돼 여수·광주 順 감소폭 커

광주·전남지역의 경지면적이 큰 폭으로 줄었다.

전남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2007년말 현재 광주·전남의 경지면적은 32만5천ha(전국 178만1천ha)로, 2006년 32만8천ha보다 1.0%(3천ha)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논은 21만8천477ha로, 전년 22만780ha에 비해 1.0%(2천303ha) 줄었고, 밭은 10만6천872ha로 전년 10만7천690ha보다 0.8%(818ha) 감소했다.

논이 밭보다 크게 줄어든 이유는 농업인들이 수익성 높은 인삼·고추·과수 등으로 작목을 전환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감소된 경지면적은 유휴지로 1천134ha, 건물건축으로 997ha, 공공시설로 650ha, 기타 482ha 등으로 바뀌었다.

시·군별로는 여수(-306ha), 광주(-294ha), 순천(-269ha) 순으로 감소폭이 컸다. 또 고흥(-190ha), 완도(-181ha), 무안(-160ha), 곡성(-159ha), 진도(-138ha), 나주(-136ha), 장성(-127ha), 영광(-123ha) 등도 크게 줄었다.

특히 논은 택지개발에 따른 건물건축이 잦았던 광주(-221ha)가 가장 많이 감소했고, 구례의 경우 논이 219ha 줄어든 반면 밭은 154ha 늘었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삼성 비밀금고 존재 확인 못했다"

특검, 참고인 소환 조사 착수

삼성그룹 비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조준웅 특별검사팀은 16일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는 한편 주요 참고인 소환조사를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우선 이틀간 삼성 본관과 이건희 회장의 자택 및 집무실, 전략기획실 핵심 임직원들의 자택, 과천·수원 전산센터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각종 서류와 전산자료를 분석 중이다.

전날 압수수색에서 '비자금 관리처'로 지목된 본관 27층 '비밀금고'의 존재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정석 특검보는 "현재로서는 비밀금고의 존재는 확인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안다"며 "삼성도 압수수색에 대비해 상당한 준비를 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의혹을 처음 제기한 김용철 변호사가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한 핵심 임원이자 '삼성 사건'의 피고발인들인 이학수 부회장, 김인주 사장 등 핵심 관계자들의 소환 시기를 검토 중이다.

/연합뉴스

13년 미개발 풍암종합유통단지 유통·편의시설로 2단계 개발

광주시-대산코리아 양해각서

13년 동안 개발 민원이 제기돼온 풍암 종합유통단지 2단계 개발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광주시도시공사는 16일 "(주)대산코리아와 광주종합유통업무설비 2단계 단지를 개발키로 하고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발될 2단계 단지 면적은 모두 3만5천평으로 지난 95년 풍암종합유통단지 조성부지에 포함됐으나, 지난 1999년 1단계 사업이 완료된 후 현재까지 미개발로 남아있던 부지다.

이에 따라 토지 소유주들로 구성된 지주조합 관계자들은 광주시, 도시공사는 물론 정부 부처에 개발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해 왔다. 그러나 최근 주민들이 일부 개발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을 제시, 사업 착수의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해각서 체결에 따라 시공사는 1단계 지역의 이용인구와 종사자를 고려해 도매상가, 냉동창고 등이 포함된 유통시설을 비롯해 병·의원과 약국, 숙박시설 등이 포함된 편의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공사비는 400억원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착공 시기는 1년 후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문화수도 조성 시민제안 쏟아졌다

'모션 캡쳐' 등 21건 접수 광주시 검토후 사업 반영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16일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2009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추진 계획안이 마련됨에 시민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접수받은 결과 모두 21건이 제출됐다.

이번 공모에서 영상 전문가 이모씨는 문화중심 도시 조성사업에 포함된 글로벌 CGI(컴퓨터형성가공이미지)센터와 관련, 모션캡쳐(인체의 동작을 모방하는 애니매이션 기법) 장비 도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제안, 눈길을 끌었다. 현재 지역 대학에 모셥캡쳐 장비가 있지만 수요층이 없어 활용도가 매우 낮다는 게 제안의 이유다.

Y인쇄업체는 도심공동화가 진행되고 있는 광주시 동구 서남동 인쇄의 거리 인근에 인쇄타운을 건립해 줄 것을 제안했다.

또 동구 지역 주민과 각 단체들로 구성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비상대책위원회는 예술의 거리에 '예술인 공방거리'를 조성, 문화중심도시 사업인 '아시아 공방촌 조성'과 연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좋은 제안들이 많았으나, 문화중심도시 조성 계획과 연계성이 없는 것들도 있는 만큼 면밀한 검토를 거쳐 사업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윤영기기자 penfoot@

천일염도 식품

식약청 개정안 고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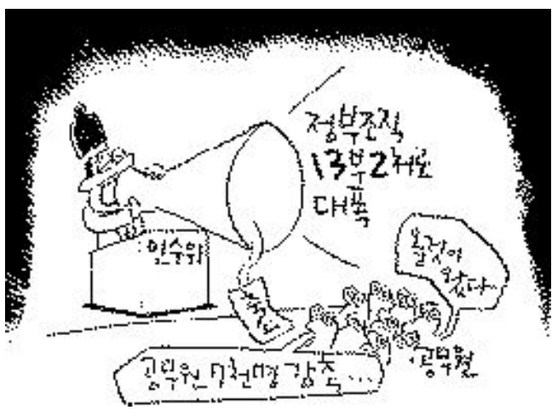
앞으로 천일염이 식품으로 관리되고 중금속 등의 식품기준이 신설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먹는 소금 항목에 천일염을 추가하고 중금속 등 식품의 기준과 규격을 신설하는 내용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마련, 이번 주내로 고시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천일염은 지난해 12월 27일 천일염을 식용염으로 분류하는 '염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받게 됐으며 식약청으로 안전관리 업무가 이관됐다. 이전까지 천일염은 '광물'로 분류돼 식용으로 쓰이는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연합뉴스

빛日만평

- 김종두



'공태백' 신조어가 나올수도…

조용수 민족일보 사장 47년만에 무죄 선고

1960년대 초 북한의 활동에 동조했다는 혐의를 쓰고 군사정권에 의해 사형당한 민족일보 조용수 사장이 47년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용석 부장판사)는 16일 '민족일보 사건'으로 체포돼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 혐의로 사형이 선고됐던 조용수 사장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에서 조씨와 이 사건에 연루 돼 징역 5년이 선고됐던 양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은 피고인 조씨가 사회대중당 주요간부라고 돼 있으나 당시 정당은 공보처에 등록돼 정치활동을 하는 집단으로 1960년 5월 결성된 사회대중당 결당 준비위는 공보처에 등록되지 않았으며, 조씨도 단지 공천을 위해 준비위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光州日報
광고접수안내
• ☎(062)220-0524
• FAX:227-9500

분 실

골프회원증
No. J01120087
광주C.C
(주)남흥건설
상기 회원증(大,小)을 분실 하였기 공고함.

분할공고
(채권자이의제출공고)
영화건설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는 2008년 01월 11일 임시주주총회의 결의로, 그 재산 및 영업의 일부를 분할하여 분할된 재산으로 가칭 새롬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를 설립하고 "갑"은 존속하기로 하는 분할계획서를 승인하였는 바, 이에 "을"은 "갑"의 채무를 승계하지 아니하고 상법 제530조의 9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을"은 분할 전 "갑"의 채무중에서 "갑"이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하고 "갑"은 을이 부담하지 않은 채무만을 부담하기로 결의하였으며, 이에 수반하여 본 회사의 액면 금 1,250,000,000원의 보통주식 125,000주를 무상소각하여감자하고 신설회사 "을"의 자본금으로서 동액면 금 1,250,000,000원의 보통주식 125,000주를 발행교부하기로 하였는 바, 이 분할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께서는 본 공고 게재일 익일부터 1개월 내로 관계회사에 이의제출 하시길 바라와 이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월 17일
영화건설 주식회사
충청남도 서천군 마서면 송내리 504-13
대표이사 김재신

SONY의 모든것
www.119accessories.co.kr
소니광주전시판매장 (062)522-2000

산행안내

1월 18일(금)

▲광주철도산악회 태백산 눈꽃축제 및 등반일차(등반 및 눈썰매) 1월18일(금),25일(금)(20:30 광주역출발)-82,400원 1월 매주토요일(19:25 광주역출발)-92,400원 T.515-7788

1월 19일(토)

▲요산회 제주도 한라산 1월19일(토) 07시20분 광주역 출발 T.016-611-1509

▲광주토요산악회 승주 조계산 1월19(토) 07시30분 염주체육관(광주역,문예회관후문경유)출발 http://cafe.daum.net/gwangjutoyo T.011-608-4267, 011-634-2044

▲팔성산악회 한라산 눈꽃산행 성산일출봉 해녀촌 1박2일 1월19일(토) 06시40분 광주역(백운로타리경유)출발 ※다음카페:팔성관광(회비:120,000원) T.011-605-3477

▲울타리산악회 한라산 눈꽃산행 1박2일 1월19일(토) 12시 백운동국제호텔옆(문예회관,은병원,KT경유)출발 ※다음카페:광주울타리산악회 T.010-5500-3598

1월 20일(일)

▲광주유권자산악회 두산 일광 달음산 1월20일(일) 07시30분 대인광장(문예회관후문경유)출발 T.011-612-4252, 011-607-2200

▲한울산악회 장흥 가지산 1월20일(일) 08시 국제호텔건너편광주은행(문예회관후문경유)출발 ※네이버카페:한울산악회 (예약,보험가입) T.011-645-3371, 011-635-9329

▲광주우보회 해남 금강산-만대산 1월20일(일) 08시 대인광장(07:30염주체육관)출발 T.011-9600-5364, 019-656-9498

▲대한산악연맹광주알파인클럽 대장산 1월20일(일) 07시25분 하남하이마트(염주체육관,문예회관후문,비엔날레주차장경유)출발 http://cafe.daum.net/kjwhitetiger T.011-624-5005

▲무등산악회 경남 하동 금오산 1월20일(일) 08시 롯데백화점정문(두암동은병원경유)출발 T.011-602-6278

▲나사모산우회 경기도 양평 용운산 1월20일(일) 05시45분 염주체육관(광주역,문예회관후문경유)출발 http://cafe.daum.net/gwnasamo T.011-643-1804, 266-7223

▲빛고을뫼오름산악회 지리산 관록대 1월20일(일) 07시30분 염주체육관 출발 T.011-609-7159, 011-605-0770

▲광주한길산악회 합천 가야산 1월20일(일) 07시 광주역 http://cafe.daum.net/gjhangil T.222-3253, 010-7619-0559

▲거북이테마산악회 덕유산 눈꽃산행 1월20일(일) 07시 염주체육관(현대백화점,문예회관경유)출발 T.011-624-2181, 011-604-3951

▲광주한빛산악회 경남 거제 노자산(거제포로수용소관람) 1월20일(일) 07시30분 광주역광장앞 출발 ※다음카페:광주한빛산악회(회비:20,000원,보험료포함) T.010-3131-3580

▲전남산악회 덕유산 태봉-지봉 1월20일(일) 08시 광주역 출발 T.010-9776-3630, 011-642-5197

▲보라미산악회 완도 상황봉 1월20일(일) 07시30분 염주체육관(광주역,두암동은병원,홈플러스경유)출발 ※일일보험가입 T.011-645-7796

▲다음카페:(사)요산요수산악회 산청)왕산-필봉산 1월20일(일) 08시 전대병원응급실건너(지하철3번출구)편(광주역,동광주경유)출발 T.011-620-2002

1월 22일(화)

▲염주산악회 강원도 태백산 1월22일(화) 05시 염주체육관(문예회관후문경유)출발 ※선착순예약접수(회비:30,000원) T.011-608-2208

1월 23일(수)

▲광주일주산악회 경남 부산 금정산 1월23일(수) 08시 광주역 출발 T.011-602-3709

1월 26일(토)

▲광주금강산악회 소백산 눈꽃산행 1월26일(토) 07시 염주체육관(문예회관후문경유)출발 ※다음카페:광주금강산악회 T.017-603-4900, 011-624-8004

▲광주메아리산악회 태백산 눈꽃산행 1월26일(토) 22시 시청(문예회관정문경유)출발 http://cafe.daum.net/mkyw T.011-601-2894

▲광주토요산악회 한라산등반과우도1박2일관광 1월26일(토) 07시 광주역(문예회관후문경유)출발 http://cafe.daum.net/gwangjutoyo T.011-608-4267, 011-634-2044

1월 27일(일)

▲광주자연보존산악회 부주 덕유산 1월27일(일) 08시 부동경기장 출발 cafe.daum.net/JAYNSAN T.011-666-3291

▲솔잎산악회 남해 망운산 관태봉(삼천포 수산시장경유) 1월27일(일) 08시 광주역 출발 ※다음카페:광주솔잎산악회 T.011-605-5034, 010-9624-6649

▲광주산가족 덕유산 향적봉-백암봉 1월27일(일) 08시 대인광장(두암동삼성홈플러스경유)출발 T.019-499-1405, 011-9608-3357

▲비두리산악회 강진 영암 월각산 1월27일(일) 08시 광주역 출발 ※다음카페:비두리산악회 T.011-640-0871

2월 14일(목)

▲광주한국산악회 제주도 우도 및 한라산 눈꽃산행(1박2일특별산행) 2월14일(목) 06시 염주체육관(문예회관후문경유)출발 ※예약타람 T.011-615-2279

E-Supporter 어학원
http://www.e-supporter.co.kr
필리핀에서 영어를 배울 수 있는 최고의 기회
타어학원에 비해 가격 최저! 효과 최고!
E-Supporter가 영어공부 하기 좋은 이유?
1 기숙사 통합 관리 시스템
2 개인별 맞춤 커리큘럼을 제공
3 100%의 영어사용환경을 유지
4 세미스파르타식 어학원

연수비용 *만원

과정	2인실	1인실
2개월	150	160
3개월	215	230
4개월	285	605
5개월	345	370
6개월	399	429

필리핀 어학연수의 무한공감!!
E-Supporter에서 선착순 30분께 연수비용 파격적 할인!
▣ 비용내 포함 내역 (항공요금 및 교재비 별도)
- 비자 연장 및 ssp 발급, - 마닐라 공항 픽업,
- 청소 빨래 식사 등의 각종 편의 제공, - 각 레벨에 따른 수료증 발급

· 학원건물 · 휴게실 · 학원입구 · 도서관

상담문의 ☎ 062) 264-0882, 010-2255-0459